

명치초기 일본의 지식인운동 —「明六社」의 사회계몽활동을 중심으로—

김 용 덕

1890년대 초는 일본에 있어 구체제의 폐해를 타파하고 새로운 국가의 기초를 다져가는 전환기였다. 그러나 아직도 불평등조약하에서 외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주독립을 지켜야하는 것은 전제임과 동시에 앞길을 제한하는 한계이기도 하였다. 여기에 부국강병과 명치개화는 모두가 따라야하는 목표로 설정된 것이다. 당시 분명개화를 앞서 추진한 것은 물론 서양지식을 상당히 습득한 지식인들이었고 이중 핵심적인 명망가들이 모여 조직한 것이 「明六社」였다.

본 연구는 「明六社」에서 발간한 『明六雜誌』의 내용 중 주로 비정치적인 사회계몽에 관한 논설들을 검토 분석한 것이다. 그 내용은 첫째, 서양과학 즉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를 모든 현상--사회현실에까지 적용하려는 태도, 둘째 종래의 가정과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습을 타파하고 국가건설의 기초를 새롭게 굳건히 하려는 의도, 셋째 종교와 미신을 구분하여 종교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이용하자는 입장 등으로 정리된다.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논의는 어떻게하면 부국강병하여 나라의 자주독립을 지키는가로 귀결되고 있다. 이점에서 정부의 목표와 일치한다. 한편 「明六社」의 계몽주의자들은 일반백성들은 종래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로 보았다. 따라서 위로부터의 계도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엘리트층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피상적인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다 근원적인 본질에 대한 집착은 미숙하였다. 결국 문명의 우열관계로 서양강국과 일본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역사원들은 일본내 불합리하게 보이는 사회현상의 역사적 관련이나 구조적 모순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상적 당위성과 상황논리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다.

I. 문제의 소재

明治(1868~1912)初期, 그 중에서도 1870년대 초반은 徳川幕府를 타도하고 성립된 明治政府에게는 새로운 국가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시험기였고 동시에 舊體制의 폐해를 타파해야 하는 전환기였다. 歐美의 강국들에 의해 개항이 강요되고 불평등조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던 日本로서는 자주독립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富國強兵을 추진해야만 하였다. 富國強兵은 日本을 압박하고 있는 歐美의 강국들을 목표로 하였다. 즉 서양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며, 이를 위하여 배우고 따라야 할 모범이었다. 한편 日本을 뒤지게 한 원인으로 파악된 舊體制下의 모순들은 시급히 제거해야 할 부정적 유산이었다. 文明開化가 富國強兵의 수단으로, 아울러 선진국으로부터 동등한 국가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필수적 과정으로 지도층에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이때였다!¹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추구하려 할 때, 국민을 깨우치고 이끌어가는 지도세력이 나타나야 함은 물론이다. 지도세력 가운데에는, 그 목표와 자기들의 신조를 일치화시켜 목표의 추구 곧 정치적 실천에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그 목표의 합리적 설정과 추구과정을 냉정하게 관리하고 때로는 견제도 하려는 그룹이 있다. 明治初 日本의 경우 反幕투쟁을 거쳐 정권을 장악한 이른바 “藩閥”세력이 전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末期의 德川幕府로부터 明治政府에 걸쳐, 정권의 향방에는 관여하지 않고 日本이라는 국가의식하에 개화를 주장해 온 지식인들은 후자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日本정부가 舊體制를 탈피, 근대국가를 향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 할 때 이미 서양의 학식을 어느 정도 몸에 갖추고 있던 지식인 그룹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뜻을 펼 수 있는 때를 만난 것이었다. 흔히 그 역사적 기능에 있어서 근대초기 서양의 계몽주의 학자들과 비견되고 있는만큼 明治初 日本의 文明開化論者들은 전통적 제도와 습관·사고방식 곧 ‘虛學’의 세계로부터 사실에 바탕한 실천지식 곧 ‘實學’의 세계로 사회가 전환해야 한다는 일치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서양의 강국들에 의해 개방된 이후 위기를 느끼고 있던 상황하에서 그들의 文明開化論은 日本나름의 특수성을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天賦人權論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은 이를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서양강국들에 대항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논리로 판단하고 수용·전파하였다. 즉 이들에게는 대외적인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대적인 통일국가·국민국가를 새롭게 이룩하는 것이 과제로 닥쳐 개인의 자유·권리와 같은 관념도 이 과제와의 연관속에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植手, 1974 : 113) 한편, 서양강국들은 대항해야 할 대상이면서도 그들이 선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한 배우고 따라야 할 문화의 나라들이었다. 근대서양문화에 대한 기대의 근거에는 일차적으로, 발달된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정이 있었고 이를 이루게 한 합리적·실용적인 사고방식과 생활태도에 대한 선망이 있었다. 합리적인 서양문화는 日本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발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이들이었었기 때문에(Pyle, 1989 : 677) 어떻게 하면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를 배워들이느냐가 급선무였다.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근대적 국가의 반열에 참여하기 위하여 富國強兵과 文明開化의 추진은 절대적인 것이었고, 이는 부조리한 전통과 구습의 타파와 합리적인 서양문화의 도입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 明治初期의 개화론자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활동한 조직이 「明六社」(明治 6년에 발기한 모임의 뜻)였다.² 森有禮가 ‘天下의 名士’들을 모아 비평·토론의 場으로서 「學·術·文社中」을 조직하였다는 것이 바로 明六社이다. 森가 뜻한 學=science, 術=technic,

1 文明開化를 계몽운동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로 국한하여 그 시기를 좁게 잡을 경우, 통일국가의 기틀이 잡힌 1871년(廢藩置縣)으로부터 1877년 즉 自由民權運動이 본격화되어 文明開化의 내용이 분화되는 때까지로 볼 수 있다.(大久保利謙, 「文明開化」, 『岩波講座 日本歴史 - 近代2』 1962, pp.255-257) 물론 이는 역사적 현상으로부터는 의도적인 추진노력의 시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2 明六社의 설립과 구성에 관하여는 金容德, 『日本近代史를 보는 눈』(1991) pp. 83-84 참조.

文=literature를 그대로 따르다면 明六社는 The Society of Science, Technic and Literature가 된다.(大久保, 1976 : 12) 明六社의 그 구성원들은 배경과 성향이 다양할 뿐 아니라, 그들 개개인은 평생동안 사상적인 전회를 보이기도 하는 등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들이 明六社員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1874~1875년은 비록 단기간이었지만 한달에 두번씩 여는 토론회 및 강연회 그리고 『明六雜誌』의 출간을 통하여 국가의 지도이념과 실시가 요구되는 그 시기의 지적인 지도력을 발휘했음은 특별히 주목된다.

森의 원래 의도를 넘어 明六社員들의 관심은 사회전반에 걸쳐 미치지 않는 바가 없을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민감한 정치적 입장의 표명이나 자신들의 참여방식 등을 둘러싸고는 社員들 간에도 공개적인 논박을 거듭하였다. 福澤諭吉 같은 사람은 정치적으로 당시로서는 가장 진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社員들에게 반박의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기까지 하였다.³ 그러나 정치적 논쟁에 해당되는 글은 『明六雜誌』에 실린 모든 글 가운데 5분의 1이 채 못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계몽적인 종합잡지답게 다양한 테마를 취급하고 있다. 洋學에 일찍 눈을 뜬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日本社會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느 분제라도 계몽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백과전서적 인물들이었다.

다만 明六社員들의 공통된 관심은 모든 현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었다. 합리성은 곧 효율성으로 나타나고 경험적으로 실증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실증적인 자연과학을 자연과학 자체로서보다는 자연과학적 범칙이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자연과학적 지식을 수단으로 하여 ‘우매한 눈’을 뜨게 하는 교훈을 거기에서 얻으려는 것이 본뜻이었다.(遠山, 1985 : 76-77) 합리적이고 계몽적인 그들의 논설은 한편 사상적인 깊이에 있어서는 피상적이었고 일반백성들에 대한 愚民觀이 깊게 내포되어 있는 것 또한 간파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明六社에 모인 지식인들이 文明開化의 구체적인 방향과 그 달성의 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나타내었는가를 『明六雜誌』에 실린 논설을 중심으로 고찰하려 한다. 정치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民選議院論과 學者職分論은 별도의 논고에 미루고,⁴ 여기에서는 사회계몽에 관한 明六社의 활동만을 다룰 것이다.

3 明六社내에서의 福澤의 특이한 태도때문에 明六社의 공통적 성격에 맞지 않는다하여 明六社論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Huish, David J., "The Meirokusha : Some Grounds for Reassessment",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2, 1972, pp.228-229)

4 民選議院論에 관한 간략한 고찰은 金容德, 前掲書, pp.75-92 참조.

II. 과학적 이해와 적용

개화에 대한 구체적 정의로는 森有禮의 논의가 먼저 보인다.(明六雜誌 3 : 61-62) 즉, 역사상 나라에는 隆替가 있었어도 문명의 運에는 아직 退轉이란 없었다고 그의 계몽주의적 발전사관을 밝히며, “事物의 理, 造化의 妙를 깨우치고 …學識을 익혀 마침내 才德이 빛을 발하게 되면 開化의 域에 이른다”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日本에서는 이에 따라 千工萬藝를 일으키고, 통상을 열어 공업의 수준을 높여간다면 사람들은 점차 문명의 이익을 맛보게 되고 나라는 비로소 그 위치를 보전하게 된다고 森은 인간의 智力開發로부터 국가의 독립에까지 文明開化의 의미를 잇고 있다.

津田眞道도 뒤이어 유사한 정의를 보다 구체화시켜 밝혀 놓았다.(明六雜誌 3 : 65) 儒佛仙의 가르침을 高遠한 空理의 虛學으로 비판한 그는 실물·실상에 부딪쳐 확실한 이치를 설명하는 서양의 천문·물리·화학·의학·경제·철학과 같은 것이 實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實學이 국내에 널리 퍼져 사람들이 이치를 깨닫게 될 때 참문명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津田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서양지식이 實學이라는 관념을 가진 일부 明六社員들은 서양모방에 꺼리낌이 없었다. 明六社에서 공개적인 연설을 시작하자고 할 때, 森有禮는 서양식 speech는 서양 언어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까지 하였다. 福澤諭吉가 직접 日本語로 실연해 보임으로써 해결되긴 하였으나 초기의 歐化熱을 짐작할 수 있는 예이다.(大久保, 1976 : 20) 문자도 洋字로 바꾸어 보자는 西周의 주장은(明六雜誌 1 : 51-56) 森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社內에서조차 동조자를 얻지 못하였으나, 개화의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고쳐보자는 西村茂樹(明六雜誌 1 : 57)와 만국의 문자통일을 시도해보자는 阪谷素(明六雜誌 10 : 107-108)의 논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들의 文明開化에 대한 입장이 서양의 과학·기술의 도입에 치중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를 통해 습득해야 할 합리적 사고와 행동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계몽을 위한 과학적 설명의 논리에서 항상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양의 과학을 과학지식 자체로만 소개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清水卯三郎의 「化學改革之大略」⁵과 津田仙의 「禾花媒助法之說」⁶ 정도이다. 清水는 서양의 과학에 대한 수용이 日本에서 늦게되는 까닭은 서양에서와 같은 學團이 없을 뿐 아니라, 있더라도 그에 대한 참여의 길 또한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明六社員들만이라도 자연과학에 대하여 관심에만 머물지 않고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津田仙도 새로운 벼의 배양법을 정부에서 장려한다면 그 증산의 이득으로 십수년내 國內外債 탕감은 물론 공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자금도 마련될 수

5 최근의 서양화학의 발달된 지식에 의하면 64개의 원소가 음극과 양극으로 나뉘는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소개한 글이다. 『明六雜誌』 22, p.165.

6 비엔나에서 농업기술을 배워온 津田仙이 媒助稻의 배양기술을 日本에서 시험해 본 결과 종래보다 3~6할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음을 보고한 글이다. 『明六雜誌』 41, p.254.

있다고 농업기술을 소개하는 현실적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과학지식에 대한 순수한 설명이라 해도 文明開化論者들은 日本人들에게 선진문화를 이해시켜 日本의 현실을 개량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서양의 과학에 대한 소개는 아니나, 埋葬의 폐해를 주장한 阪谷素의 발언은 당시로서는 과학적인 이해에 근거한 것이었다.(明六雜誌 18 : 144-145) 매장하면 시체가 부패하면서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다분히 실제적인 과학지식의 이해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에 남아있는 불건전한 요소들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미신적 악습을 새로운 과학지식을 동원하여 그 허구성을 지적한 논설들은 당시의 계몽적 역할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일반백성들의 무지를 일깨우기 위하여 津田眞道는 「天狗說」⁷을 썼다.(明六雜誌 14 : 126-127) 中世에 우매한 백성들에게 불교전파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天狗의 존재는 시대가 지남에 따라 더욱 日本人들의 생활 속에 파고 들어왔으나, 실제로 근대 천문학의 지식으로는 그 존재가 전혀 인정될수 없음을 津田는 밝히고 있다. 일식·천동·번개에 관한 이치가 과학적으로 명료해졌는데도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조차 아직도 이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愚民들이 天狗를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새로운 과학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식자들을 오히려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天狗의 세계를 未開化의 수준으로 설명하는 津田는 더 나아가 당시 개화를 주도한다 하면서도 그 본뜻을 파악 못하고 있는 위정자들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즉, 지혜는 李鴻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스스로 개화하였다하여 아시아의 비스마르크를 자처하는 사람은 아직 半開化의 사람이면서 開化의 域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人間天狗라고 지적하였다. ‘아시아의 비스마르크’는 곧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大久保利通였다. 서양에서 발달한 근대 천문학을 원용하여 天狗의 미신으로부터 우매한 백성을 깨우치려 한 津田의 다른 뜻은 文明開化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통적 지식인들과 天賦人權論과 같은 개화의 이념을 무시하고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내 일부지도자들을 비판하려는 것이었다.

미신타파를 들어 현실비판을 의도한 예는 津田의 「怪說」도 마찬가지이다.(明六雜誌 25 : 178-179) 우리의 智力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怪’인 바, 옛날에는 怪異함이 많았으나 후대로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것은 점차 문명화되어 간다는 증거라고 하였다. 아직도 괴이한 현상이 없지는 않으나 이는 그 이치를 파악하지 못한 것일 뿐 과학의 발달에 따라 없어질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였다. 영혼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도 뇌의 작용을 탐구하는 ‘腦學’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 津田는 天狗나 영혼을 믿는 盲信者를 병적인 증세로 파악하였다. 뇌와 신경이 感應錯亂하여 盲信상태에 빠지는 것이므로 발달된 과학지식으로 그 이치는 규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방법은 국가통치의 문제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怪說」의 결론을 津田는 다음과 같이 맺고 있는 것이다.

7 天狗는 日本풍속화에 자주 보이는 큰 산속의 긴 코를 가진 붉은 얼굴의 귀신이다.

국가를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군주는 뇌, 百官은 神經五官百體라 할 수 있다. 뇌와 신경이 感應錯亂하면 五官百體는 제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정신이상이라고 바로 그것이다. 시녀와 환관이 권력을 농락하고 대신이 발호하며 병졸이 저항하거나 政令이 권위를 잃고 百官이 맡은 바를 잘못할 때 國體가 어지러워져 국가의 병은 몽유병이나 광란증세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를 가리켜 '怪國'이라 한다.

뇌와 신경이 제기능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것에서 정신질환의 과학적 설명을 하려던 논의가 군주와 관료들의 국가지도능력을 파악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이해를 현실로 적용하려는 설명방법이 阪谷素에게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즉 그의 「孤說」은 오래도록 인간의 뇌수에 각인된 선입관에 의해서 妖怪에 대한 미신이 만들어져 온 것을 과학적으로 언급한 것이다.(明六雜誌 20 : 153-155)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는 자연의 도리를 이해하여 심신을 바르게 하면 되지만, 인간을 미혹시키는 것에는 허황된 믿음만이 아니라 아편·술·色·황금 등도 있다. 특히 물욕(황금)은 인간이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피해가 매우 큰데, 그 피해는 公心公義에 따라 없애가야 한다. 公心公義는 위에 있는 사람이 천하인민을 時勢에 따르게 하고 신분에 맞게 자주·자유·공정의 권리를 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다. 자연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하여 미신을 깨우치게 함과 동시에 사회개혁의 논리로도 전용되고 있는 점에서 阪谷도 다른 明六社員들과 軌를 같이 하고, 정권담당세력에 대한 津田의 비판적 태도가 阪谷에게서는 기대로 바뀌어 그 뉘앙스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일반백성이란 文明開化시켜야 할 대상일 뿐, 타파해야 할 누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적 요인에 대한 인식이 明六社員들에게는 분명하지 않은 점이다. 지식인들은 계몽의 선도자로서, 나아가 정권담당자들에게 비판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日本에 있어서 누습과 미신타파의 논리를 자연과학적 지식으로 설명한 明六社 지식인들은 한편 서양의 기술·과학을 그 자체로 파악하면서 이 또한 정치현실의 개혁에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西周의 「煉火石造之說」이 그 첫 예이다.(明六雜誌 4 : 72) 그는 유럽의 건물이 웅장하고도 튼튼한 것은 네모반듯하게 구운 견고한 벽돌을 재료로, 그 형질을 匠人이 잘 이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정자의 통치술에 빗대어 보면, 관료가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하여 백성을 억누를 때 벽돌에 해당하는 백성 개개인은 자신의 본분을 지킬 수 없어 유약해지고 마는 경우일 것이다. 굳고 네모반듯한 것은 벽돌의 성질이고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일진대, 匠人이나 위정자가 벽돌을 등골게 하고 사람을 굴종케 한다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성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건축가가 벽돌의 성질에 맞춰 집을 짓듯이 정권을 맡은 사람은 필부의 권리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西는 논증하였다. 더우기 당시 日本은 일반백성들의 권리의식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오히려 보호·육성할 책임이 위정자들에게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津田眞道の 「근본은 하나가 아님」이라는 글은 예는 다르지만 西의 주장이나 논리 전개 방식과 상당히 비슷하다.(明六雜誌 8 : 97) 만물의 근본을 中國人들은 天, 日本의 國

學者들은 天神, 기독교인들은 造化主와 같이 유일한 존재에서 찾고 있으나 서양의 과학에 따르면 60여개의 위소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나라의 근본이 유일한 군주에게 있다고들 하나 실은 千萬蒼生에게 있다고 津田는 國本으로서의 民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津田가 民本の 개념으로까지 진진시키지는 못하고, 土石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가장 지적인 인간이 생기듯 인간사회내부에서 최후로 성립된 군주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한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치상황과 사회현실에 대한 고발과 개혁의도에서 나오지는 않았으나, 箕作麟祥의 「인민의 자유와 토지의 기후는 서로 상관됨」이라는 글은 봉테스큐의 『법의 정신』의 일부를 초역하여 동서양의 정치체제의 차이를 지리학적으로 보여주려 한 것이다.(明六雜誌 4 : 68-69, 동 5 : 77-78) 기온적으로 남북간 熱冷의 차이가 심한 아시아에서는 남쪽이 북쪽의 예측하에 들어가고 말았으나, 熱과 冷의 사이에 온난지역이 퍼져 있는 유럽에서는 한 나라가 일거에 壓服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또한 아시아에는 언제나 큰 나라가 있어 그 제왕이 무수한 백성을 지배·통제할 수 있었으나 유럽에는 그렇게 큰 나라가 나타난 적이 드물다.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는데에는 제왕이 전제정치를 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몇개의 나라로 갈려도 결국 地勢에 맞지 않아 다시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箕作의 설명방식이다. 즉 서양의 정치전통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본 받으려한 箕作은 아시아와의 풍토적 조건의 차이에서, 편리한 과학적 해답을 찾았다. 인민의 자유·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믿은 서양에 대한 日本의 계몽주의 지식인의 전형적인 예를 볼 수 있다.

과학적 이해 그것은 明六社 지식인들과 같은 文明開化論者들에게는 모든 현상의 이치를 명료하게 밝히는 기초수단이었다. 虛學이 아닌 實學일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었다. 이들이 받아들인 과학지식이야말로 서양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어 그들은 日本의 개화의 첫걸음을 과학지식의 수용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미신에 젖어있는 우매한 민중을 계몽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실증적 이해가 가능한 과학적 설명방법이었다. 그러나 明六社員들은 새로운 과학지식을 통하여 사회현실과 정치상황까지를 설명하고 개혁하였다. 자연과학적 지식은 보다 확대된 적용범위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과학적 이해를 치중한 나머지 사회현상의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깊은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일반백성에 대하여는 愚民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Ⅲ. 가정과 여성의 개화

관습을 떨쳐버리기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의 문제이다. 문명국을 그리는 계몽적 지식인들에게 가정, 특히 부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은 당연하였다. 그들이 사회개혁의 기본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天賦人權論에 비추어 보아도 日本의 가정은 개화의 영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明六社 안에서 새로운 부부관계상을 먼저

제시한 것은, 가장 오랜 동안 歐美유학을 하고 돌아온 森有禮였다. J.S.Mill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Hall, 1973 : 253) 그의 논설은 다섯회에 걸쳐 「妻妾論」으로 발표되었다. 그의 「妻妾論之一」(明六雜誌 8 : 93-94)은 “부부관계는 人倫의 大本이다. 그 大本이 서야 [人倫의] 道가 행하여지고, 道가 행해져야 나라는 마침내 굳건해진다”는 선언적 구절로 시작된다. 나라를 굳게하기 위하여는 가장 기초단위로서의 가정=부부관계가 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에게 扶助를 요구할 권리와 아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보호를 요구할 권리와 扶助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는 개인적 의지에 의한 관계이므로 이에 근거하지 않은 결혼은 올바른 인간의 결혼이라고 볼 수 없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남편이 멋대로 아내를 부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아내도 나라의 법이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그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는 성립될 수 없었다. 森은 올바른 결혼이란 男尊女卑의 누습을 타파하고 당사자들의 의지로 맺어지는 것이므로, 부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애정을 부부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로 바꾸지 말아야 하는 평등한 관계임을 주장한 뒤, 더 나아가 결혼을 개인간의 계약관계로 규정하는 婚姻律案을 만들기도 하였다.(明六雜誌 27 : 185) 이에 따르면 부부는 완전히 같은 자격의 주체이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森의 주장은 明六社 안에서도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津田眞道는 「夫婦同權辨」이라는 글에서 서양에서도 아직껏 公民權의 행사에 있어 여자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日本에서의 夫婦同權의 무리함을 비판하였다.(明六雜誌 36 : 226-227) 대신 부부간에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습관은 양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동양에서도 일찌기 지켜온 관습인 바,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야 하고, 그런 뜻에서 아내가 民事上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加藤弘之는 「夫婦同權之流弊論」에서 舊習을 비판한 새로운 森의 부부관계론 설정노력은 받아들이나 부부를 同權으로까지 올리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明六雜誌 31 : 202-204) 서양에서 부부가 제도상 同權을 갖고 있다는 것은 天理에도 맞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婦權이 夫權을 능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모든 행동에 여자쪽 편의를 먼저 살펴야 하는 예를 加藤는 여기에서 들고 있다. 남자가 여자를 돕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이나 정부가 인민을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인민을 보호하는 대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上位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는 필요하다는 것을 加藤는 비치고 있다. 天理에 맞는 夫婦同權論을 받아들인 개화파 지식인이지만 加藤는 그 天理=天賦人權論의 本意에는 이르지 못한 피상적 계몽주의자였음이 드러난다.

결국 森은 예견하지 못했던 비판의견들이 明六社 내외에서 일자, 자신의 원래 의도는 부부간의 尊卑없는 同等에 있었을 뿐 同權에 있지는 않았다고 해명하여 화살을 피하였다.(明六雜誌 32 : 211)

「妻妾論」에서 森有禮가 논한 또 하나의 주제는 一夫一妻制였다. 남편은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으면서 아내 외에 쫓까지 마음대로 들 수 있는 관습을 그는 특히 비난하였다. 목숨을 걸고 정절을 지킨 아내를 돌보지 않고 남편이란 자는 쫓을 들여 그의 정욕을 발산하는 것은 ‘無情非義를 極한’ 것이며 남을 죽이는 반쯤이나 무거운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공격하였다.(明六雜誌 15 : 127) 國法마저 妻妾을 같이 취급하여 그 자식의 권리를 평등하게 하니⁸ 蓄妾의 습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본 森는 文明開化를 막는 장애물의 제거를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蓄妾에 대한 강경한 반대는 福澤諭吉도 마찬가지였으나, 그는 「男女同數論」을 펴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明六雜誌 31 : 206) 蓄妾반대를 복잡한 논리로 설명하기 보다, 단순한 계산상의 문제로 이해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남녀의 수는 지구상 거의 같기 때문에 -夫-妻라야만 맞는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쫓을 두는 것을 밖으로는 숨기고 묵인만 해주면 남에게 숨기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인 것은 분명하므로 스스로 금해가지 않겠는가하고 무책임할 정도의 낙관적 전망을 福澤는 내리고 있다. 한편 阪谷素는 시각을 달리하여 妻妾論을 다루고 있다.(明六雜誌 32 : 209) 사람에게는 天然의 強弱이 있어 모두 균등할 수는 없는 바, 반드시 -夫-妻라야만 한다고 할 때 실제 행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阪谷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쫓을 두고 안두는 것은 각자의 자유에 맡기되 음일방탕의 악습만은 관직에 있는 사람부터 법으로 엄히 다스려 -夫-妻의 율음을 모두 깨달을 수 있도록 교화를 펴나가자는 것이다. 다만 皇統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天皇에게는 쫓을 들여서라도 皇族을 번성하게 해야 한다는 阪谷의 견해에서 國粹的인 색이 明六社 지식인 가운데에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妻妾論은 특별히 당시 언론의 관심을 끌며 1874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東京日日新聞』에서만도 여섯번이나 투서형식으로 공방을 거듭하였다.(小山, 1986 : 54) 妻妾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동등한 인권의 보장이라는 관념적이고 도덕적인 입장에서 뿐 아니라 文明開化를 조속히 달성하여 서양으로부터의 국가적 권위를 회복하려는 정치적 의도와도 결부되어 蓄妾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당시의 사회상황을 개선하려는 모든 지식인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가정과 여성의 개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明六社 지식인들의 또 하나의 주제는 그 교육적 기능에 관한 것이었다. 단 한편밖에 기고하지 않은 箕作秋平의 「教育談」은(明六雜誌 8 : 94-95)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사람은 2·3세에서 6·7세 사이에 머리속이 가장 깨끗하여 이 때가 善惡間 깊은 인상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최상의 교육기간이다. 어린이 교육상 최상의 학교는 집이고 제일의 교사는 부모이지만 그것이 어려워 학교에 맡기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箕作는 그 불가피함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重且大함은 더할 나위 없다. 그 중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빠 돌볼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가정교육을 책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女學을 일으켜 여자를 교육시키면 賢母를 양성할 수 있어 그 효과는 아이들 교육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개화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은 여성교육에서 놓여간다

8 1873년 쫓이 夫의 호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明治 6년 5월의 正院指令.

는 논리이다.

여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中村正直의 글도 유사한 논리를 펴고 있다.(明六雜誌 33 : 212-213) 여성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켜 효용이 있겠는가하는 의문도 있지만, '技藝·學術의 교육'과 '修身·敬神의 교육'을 시키면 남편을 돕고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夫婦同權에 반대한 사람도 현모양처를 기르기 위한 여자교육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中村은 믿었다. 역시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교육의도는 아직 도 미약하였다.

여성에게서 현모양처를 기대하는 것은 森有禮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妻妾論之四」에서(明六雜誌 20 : 153) 그는 좋은 어머니로서의 조건을 건강할 것, 公平·純潔할 것, 정직한 것, 意想이 높을 것 등을 들었다. 모두가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한 모범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여성들은 천성적으로 사랑과 인정에 빠지기 쉬워 자식교육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먼저 학업을 쌓아 지식을 넓히면 그 사랑과 인정은 오히려 더욱 교육효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덕목을 갖춘 교육받은 여성, 그들이야말로 문명국가 日本을 떠받드는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자를 놀이개감, 쾌락의 상대로나 여기는 당시의 현상을 부인할 수 없던 森은 외국인이 日本을 '地球上의 一大 淫亂國'으로 평해도 거짓이라고는 못하겠다고 개탄하기도 하였다.

여성의 문제에 대한 明六社 지식인들의 관념은 부강한 국가를 이룩하는 것과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蓄妾의 습관이 비난받아야 하는 것도 개인의 존엄성에 반하기 때문이라기 보다 국가의 大本인 人倫을 거스리는 것으로서 굳건한 국가수립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었다. 여성으로서의 어머니가 존중되는 것도 개인적 인격체로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라를 세워가는 건전한 국민의 육성자·보조자의 역할 때문이었다.(野崎 1976 : 264) 남성주도하의 현모양처론으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물론 그들의 文明開化運動의 중요한 한 부분은 여성에 대한 잘못된 관습의 타파에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선진국들로부터 멀리받는 日本의 누습을 빨리 개혁하여 서양국가들의 문화수준을 따라가려는 열망이 앞서있었다. 이러한 제약때문에 그들의 관념은 보다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파악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상황적이고 현실적인 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IV. 종교와 그 효용성

기독교가 日本에서 완전히 解禁된 것은 1873년(明治 6)년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해 1874년에는 문명개화의 지식인들 간에 기독교에 대한 평가 더 나아가 종교문제 전반에 걸쳐 활발한 논의가 일어났다. 明六社員들이 여기에 중심이 된 것은 물론이다. 그 중에서도 『明六雜誌』에 「教門論」이라는 동일제목으로 여섯번에 걸쳐 기고한 西周가 가장 열심이었다. 그의 教門論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明六雜誌 4 : 71)

종교는 신앙으로 인하여 성립하고 신앙은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바에 근거하는 것이

다. … 匹夫匹婦가 木石蟲獸를 神이라고 믿는 것이나 高明博識한 사람이 天을 믿고 理를 믿고 上帝를 믿는 것이나 모두 알 수 없으면서 믿는 것이니, 여기 差等은 있다해도 믿는 행위는 같은 것이다. 신앙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勇者도 힘으로 남의 믿음을 뺏을 수 없고 智者도 말재주로 믿음을 강요할 수 없다. 정부의 종교에 대한 입장은 사람들의 믿는 바에 맡겨야 하지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하고 저것은 믿으면 안된다든가 할 수는 없다.

정치와 종교는 그 차원이 달라, 종교관 각자 마음속의 믿음을 맡는 것이고 정치는 법도에 복종하는가의 여부를 붙을 뿐이기 때문에, 정부가 종교와의 관계를 끊고 정치의 大權을 분명히 하여 공정한 법도를 세운다면 사람들이 제 각각 자신의 종교를 믿는다 해도 정치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오히려 정치와 종교가 뒤섞여 (또는 일치되어) 일어나는 폐해가 크다. 이는 이미 서양에서도 경험한 바이라고 西는 근대 이전 유럽의 종교적 폐해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자기나라의 帝王을 神으로 백성들에게 믿도록 하는 것에 반대한 그가 天皇을 神格化한 日本의 神道관행에 반대한 것은 물론이다. 帝王은 神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明治初 합리주의자로서의 그의 자세가 잘 나타난다.

종교는 신앙의 세계라고 주장하는 西는 그 자신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天의 존재는 인정한다. 즉 「教門論 六」(明六雜誌 9 : 100~102)에서 그는, 양심에 따르면 기쁨을 느끼고 거역하면 괴로워하는 이 '性'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이는 모든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것 곧 天賦라고 믿을 수 밖에 없다. 사람의 형체도 부모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天賦라고 하였다. 天의 존재가 확실하다면 天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西는 “理가 연유하는 바를 가리키는” 것, 理의 근거라고 답하고 있다. 天이란 다만 그 이상 더 높음이 없는 위치를 가리키는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⁹ 종교에 관하여 논급한 明六社의 다른 지식인들도 기본적으로 西周처럼 그것이 迷信·邪教가 아닌 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였다.

분명개화를 앞장서 추진하려는 그들이었던만큼 종교의 현실적 기능과 효용성에 관심이 없을 수 없었다. 이 문제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津田眞道였다.(明六雜誌 3 : 65-66) 개화를 이루는 길에는 종교와 학문을 통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학문에는 虛學과 實學이 있어 實學만이 옳은 방법이라고 그는 앞서도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일반백성이 학문을 익혀 개화의 경지에 이르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 개화시키는 것이 빠른 길일 것이라고 하였다.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 그는 착목하였다. 현재 서양문물과 함께 기독교가 日本에 들어오는 것은 물 흐르는 것같은 자연의 형세이므로 개화를 돕는 데는 기독교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서양인을 고용하여 학문을 배우는 것처럼 기독교 선교사를 고용하여 인민을 계도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津田는 내어 놓았다. 우매한 백성들은 계몽의 신속성

9 이 점에서 西周는 오키유 소라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小泉仰, 『西周と歐美思想との出會い』(三・書房, 1989) p.333.

과 효율성의 면에서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근대학문보다는 마음으로 쉽게 빠져 들 수 있는 서양종교를 통해 계몽하자는 기능적 발상이었다.¹⁰

津田와 마찬가지로 中村正直도 개화를 이루는데 있어 종교의 효율성을 제안하였다. 「인민의 성질을 개조해야 한다」는 글에서(明六雜誌 30 : 201-202) 그는 제도의 개혁보다 인민의 성질의 개조가 근본적인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人民과 政體를 물과 물병으로 비유해 보면, 물병의 모양에 따라 물의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보어도 물의 본성은 그대로이다. 사람들의 나쁜 성질을 그대로 두고 제도를 변화시켜 보아도 민심은一新될지 몰라도 진정한 개화의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인민의 성질을 개조하는 길을 택해야 하는 바, 여기에는 藝術[學術]과 敎法[宗教]의 두 방법이 있다. 학술은 물질적 개화에는 큰 구실을 하나 성질의 개조에는 그만큼 효과가 없으므로 종교를 통해 물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고 中村는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柏原孝章는 종교의 효율성을 정치와 연결시켜 파악하려 하였다. 우선 종교는 王者가 하부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하부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종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로서 마음이 바라야 修身齊家할 수 있다고 그는 보았다. 齊家は 곧 국가자주의 대권을 세우는 기초이다. 修身을 못하면 품행이 고상하기를 바랄 수 없고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나라의 법을 준수할 수 없다고 柏原는 주장한다.(明六雜誌 30 : 201) 종교를 통하여, 국가자주를 위해 몸바칠 모범국민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종교를 正敎와 邪敎로 구분하여 아무리 종교가 사람들이 받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라 해도 그것은 正敎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치의 權과 종교의 道는 근본을 달리한다고 하지만 邪敎가 정치에 많은 해를 끼친 것은 神權政治의 예를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正敎는 이스라엘의 十誡가 보여주듯 정치에 도움이 되는 점이 있으며 정치와 같은 목적을 가질 때도 있다고 그는 종교의 정치적 효용을 언급하고 있다.(明六雜誌 29 : 197)

종교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비슷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다. 먼저 西周는 정부에 종교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內心信奉’하는 바에 있어서는 간여하지 말고 오직 밖으로 나타나는 바가 나라의 정치와 서로 모순되는 것만을 금하면 충분하다고 제안하고 있다.(明六雜誌 5 : 74-75) 제일 중요한 것으로 日本에서는 天皇制와 같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에 부딪치는 종교는 정치적으로 큰 해가 되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宗門간에 싸우거나 신앙선택의 자유를 막는 행위, 풍속의례에 거스르는 것 등은 종교 본래의 뜻에 비추어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소극적 정책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인도책을 西는 제시하고도 있다.(明六雜誌 6 : 81) 즉 鄙粗猥雜한 邪敎의 미혹에서 벗어나 純淸簡潔의 善敎로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인민에 대해 부모와 같은 위치에 있는 정부가 마땅

10 津田 자신은 기독교를 가장 우월한 종교로 보지는 않았다. 다만 서양문물을 익히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생각했던 것 같다. 실제 그는 「明六雜誌」 21에 게재한 「三聖論」에서 석가·예수·공자의 가르침 慈悲·愛·仁은 조물주의 德의 大本으로 뜻하는 바는 하나라고 하였다.

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의 면에 보다 비중을 둔 정책제안은 곧 이어 森有禮에게서도 나왔다.¹¹ 그러나 柏原孝후의 제언은 보다 적극적이다. 종교는 사람들이 스스로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된다고 하나, 학식이 높은 유럽인들은 마음대로 두어도 木石蟲獸를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에는 우매한 사람들이 邪教에 미혹될 가능성이 많은데 정부에서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우월자로서의 간여를 인정하고 있다(明六雜誌 29 : 197)

明六社의 지식인들은 계몽적 합리주의자답게 종교의 보편적 성격에 대하여는 객관적 판단을 하였다. 政敎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대상으로 하고 배워야 할 종교는 선진국의 종교, 기독교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日本의 전통적 종교신앙형태는 미신적 邪教수준이었고 우매한 백성들이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저급종교였다. 우매한 백성들을 개화시키는 방법을 서양문물에서 찾았던 이들은 그 일환으로 기독교를 고급종교로 인정하고 도입하려 하였다. 그 중에서도 일부 지식인들은 기독교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백성들을 계몽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하였고, 종교를 통한 품성의 개조,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국가의 건설한 기반구축을 꿈꾸기도 하였다. 종교의 효용성에 대한 기능적 공리적 태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종교가 그들이 원하는 효용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는 극히 부정적이었다. 즉 개화와 政體에 해가 되는 종교행위는 규제·금지까지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었고 정부는 옳은 방향으로 이를 인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이 보호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규제되고 금지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논의는 종교문제에 있어서도 깊이 논의되지 못하였다. 지적으로 우월한 계몽주의자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우매한 백성을 깨우친다는 상황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V. 맺음말

本稿는 1874~5년간 발간된 『明六雜誌』에서 사회계몽에 관한 논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明六雜誌』 총43호의 내용중에는 당시 국내외적인 정치상황과 결부되어 논쟁을 거듭한 논설들도 많으나, 이에 대해 明六社의 발기자 森有禮는 “오늘날의 政事에 관하여 논하는 것은 본래 우리 社를 설립한 主意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明六雜誌 30 : 199) 本文中에서 취급한 非政治的 사회계몽에 관한 주장들은 따라서 明六社員들 간에 큰 대립없이 공감하는 것들이었다. 이 本文의 내용을 중심으로 明六社 문명개화운동의 성격의 일단을 추출해 본다.

먼저, 이 계몽운동은 당시 日本이 처한 대외적 위기상황의 한계내에 있었다. 따라서

11 森은 E.D.Vattel의 萬國公法 가운데 종교에 관한 것을 초록·번역하였다. 그 내용과 당시 明六社員들의 종교에 대한 입장의 유사성을 볼 때 1858년에 나온 Vattel의 책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추측된다. 森有禮, 「宗教」, 『明六雜誌』 6, p.83. Braisted, W.R., *Mei roku Zasshi*, p.86.

부국강병하여 자주독립을 지킨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다. 모든 관심과 노력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점에서 정부의 목표와 일치하였다. 다음으로는 목표달성을 어떻게 하느냐였다. 추구해야 할 대상이 서양의 선진국이었으므로 그 나라들의 선진국다운 요인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동시에 日本의 선진국에로의 길을 막고 있는陋習을 타파하는 것이 급선부였다. 문물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곧 근대적인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이들은 과학적이고 현실적, 공리적인 면에 치중하였다. 한편, 明治初의 계몽주의자들은 일반백성들을 관습을 헤어나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로 보았다. 그들은 스스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명의 세계로 쉽사리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愚民觀을 갖고 있었다. 위로부터의 계도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인민에 대한 愚民觀은 곧 明六社 중심 지식인들의 엘리트즘으로 나타났다. 학식에 있어 자부심을 가진 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점에 논급하려는 백과전서적 지식인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지식은 피상적인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다 근원적인 본질에의 접근은 미숙하였다. 개명을 위하여 서구화를 성급히 추구하는 나머지 이해가 쉬운 구체적인 事象에 주의를 빼앗겨 그 배경에 있는 이념에의 이해가 부족했다는 결점을 갖고 있다.(野崎, 1976 : 276) 근대화된 선진국가 곧 서양강국들을 목표로, 그 기반을 이분 발달된 문물을 배우려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日本은 낙후된 것으로만 보였다. 문명이 일직선적으로 진보한다고 믿은 이들은 日本의 西洋化는 당연한 진보의 추세로 인식하였다.

문명의 우열관계로 서양강국들과 日本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明六社員들과 같은 明治初의 지식인들은 日本내 불합리하게 보이는 사회현상의 역사적 관련이나 구조적 모순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상적 당위성과 상황논리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명치정권에 대하여 이념적 대결로 나아갈만한 비판적 자세를 갖지 못하였다. 정권담당자들의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수행에 반대하고 갈등을 빚은 적도 있으나, 당시의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위정자들과 지식인들은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다. 부국강병과 문명개화에 대한 두 그룹간의 상대적인 비중의 차이는 있었어도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였다. 문명개화기의 계몽적 지식인들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이념적으로 합리화시키고 그 과정을 자신들의 학식으로 촉진시켜간 리더십의 한 軸이었다. 1874~5년은 지식인들의 조직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던 문명개화운동의 본격적인 전파시기였고 明六社는 당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참 고 문 헌〉

김용덕

1991 『일본근대사를 보는 눈』, 서울 : 지식산업사

Braisted, William R.

1976 *Meiroku Zasshi : Journal of the Japanese Enlightenment*, Tokyo : Univ. of Tokyo

Press

Hall, Ivan P.

1973 *Mori Arinori*,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Huish, David J.

1972 "The Meirokusha : Some Grounds for Reassessment",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2

小泉仰 (Koizumi, Takashi)

1989 『西周と歐美思想との出会い』, 東京 : 三嶺書房

小山静子 (Koyama, Shizuko)

1986 「明治啓蒙期の妾論議と廢妾の實現」, 『季刊 日本思想史』 26

『明六雜誌』 (Meiroku Zasshi) 43冊

1874~1875 東京 (『明治文化全集』 18 所收, 1928, 東京 : 日本評論社)

野崎衣枝 (Nozaki, Kinue)

1976 「森有禮の家族觀」, 福島正夫 編, 『家族 : 政策と法 7 近代日本の家族觀』, 東京大學出版會

大久保利謙 (Okubo, Toshiaki)

1962 「文明開化」, 『講座 日本歴史 近代 2』, 東京 : 岩波書店

大久保利謙

1976 『明六社考』, 東京 : 立體社

Pyle, Kenneth B.

1989 "Meiji Conservatism", Marius B. Jansen ed.,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5 The 19th Century*, Cambridge Univ. Press

植手通有 (Uete, Michiari)

1974 『日本近代思想の形成』, 東京 : 岩波書店

遠山茂樹 (Toyama, Shigeki)

1985 『自由民權と現代』, 東京, 筑摩書房

Enlightenment of the Society by the Early Meiji Intellectuals, the *Meirokusha*

Yongdeok Kim*

For an emerging modern state of Japan, it was imperative and limitative to keep a independent country under the Western pressure, so-called unequal treaty system. There must have been an unanimous goal of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and "Rich Nation and Strong Forces". In 1873 (the 6th year of Meiji reign), famous experts on Western learning

set up a forum, "Meirokeisha", in the hope of enlightening the tradition-bound Japanese society at that time.

This essay discusses the columns and articles on the social enlightenment (except political and economic matters) carried on the *Meirokei Zasshi*, the official journal of the Society. In this category, there are roughly three themes i.e. to apply to the social problems their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science of the West, to found the nation by reforming the unjust family system, and to protect, even make use of, the religion by clarifying the division between the religion and superstition.

It is significant that the most of the writings tended to come into the goal of keeping the independent and strong country, which was coincided with the goal set by the government. For the notables of the enlightenment in Japan of the early 1870s, elite-consciousness was saturated while people was shown benighted. They were concerned, however, about the superficial phenomena rather than the fundamental structure that caused the West 'advanced' and Japan 'unenlightened'. Circumstantial logics conditioned their attitudes.

김용덕,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Tel: 880-6194(O), 813-4801(H)